(730)

조 선

주체 106
(2017)
5

차 례

메기양어의 발전을 위하여 ··· 1

만리마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며 ··· 2

△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 *증산의 동음 높이 울리며* ··· 6
- 자체의 힘과 기술로 ··· 8
- *버섯생산의 과학화를 위하여* ··· 10

천하절경-소백수골 8경 ··· 12

국제김정일상 수여 ··· 15

미국땅에 울려퍼진 의인칭송의 송가 ··· 15

처녀제사공들의 정든 집 ··· 16

미래과학자거리의 밤 ··· 18

필요한 전기를 자연에네르기에 의거하여 ··· 20

민족의 넋이 어려있는 조선치마저고리 ··· 22

여러가지 전자제품을 생산 ··· 24

금강산화장품전시회가 있었다 ··· 24

과학교육발전에 바친 숨은 노력 ··· 26

민족예술창조로 70년 ··· 28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에 큰 힘을 ··· 30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 32

평성석탄공업대학 ··· 34

정통무도의 발전을 위하여 ··· 36

민중의 승리로 결속된 박근혜탄핵촛불시위 ··· 38

소금생산유적발굴 ··· 40

소식 ··· 41

표지: 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연구사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에서)　　사진 리광성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2월

메기양어의 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2월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세계적수준의 대규모양어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104(2015)년 12월 삼천메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이 깃들어있는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메기생산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강력한 설계 및 시공력량을 보내주시였을뿐만아니라 현대화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명령을 받들고 현지에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은 방대한 현대화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메기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그전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이 천지개벽되였다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도시에 들어앉아도 손색없을 멋쟁이 공장이 보란듯이 일떠섰다고, 규모나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있어서 우리 나라 양어부문을 대표하는 공장,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가 또 하나 늘어났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신 다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보급실, 종합조종실, 종어호동, 알깨우기호동, 비육호동, 팽화사료공장, 랭동저장고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못들마다에 욱실거리고있는 팔뚝같은 메기들을 보시면서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은것 같다고 정말 흐뭇한 풍경이라고 기뻐하시였으며 랭동저장고에 쌓여있는 랭동메기를 보시고서는 만시름을 다 잊으신듯 못내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메기공장이 메기양어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것만큼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삼천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글 김대현

려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3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6월

만리마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며

오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끝없는 정열과 헌신은 주체조선의 모든 기적과 혁신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된 지난해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원쑤들의 발악은 최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바로 지난해에 조선에서는 새로운 비약의 시대, 만리마의 시대가 펼쳐졌다.

두말할것없이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것이다.

지난해 1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며 기적과 위훈을 떨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이어받아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할수 있게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만리마시대창조의 나래를 펼쳐주시였다.

만리마, 이것은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려는 그이의 철석같은 의지의 발현인 동시에 천만군민을 만리마에 태워 사회주의강국의 행복한 미래의 주인공들로 하루빨리 되게 하시려는 크나큰 사랑의 발현이였다.

지난해 5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장을 찾으시여서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자고 호소하시고 200일전투를 앞두고 보건산소공장건설장을 찾으시여서는 9월 9일까지 공장을 훌륭히 완공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6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여서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워주신 천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리던 전세대들처럼 우리 당이 태워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잡고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천리마시대에 이어 만리마시대에도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천리마시대에 이어 만리마시대에도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라!

그이의 대해같은 믿음은 공장의 전체 근로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근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하기에 조선의 천만군민은

온 나라에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져 금속, 화학,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11월

강원도인민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만리마시대의 본보기정신인 강원도정신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일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지난해에 온 나라 도처에서 만리마의 새시대를 장식하는 민족사적인 경사들과 승리의 소식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였다.

중중첩첩으로 겹쳐드는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조선은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질풍노도쳐 달리며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주강국에로 가는 넓은 길을 닦아놓았으며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전국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최고생산년도를 돌파하고 인민군대가 앞장서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이였으며 뜻밖의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함북도지구들에 대한 피해복구전투에서도 기적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언론들까지도 조선의 만리마속도에 대하여 전하면서 처음은 그저 과장인줄 알았다, 천리마도 대단한데 만리마라니, 그런데 진짜 만리마를 타자고 한다, 천리마의 10배다, **김일성**주석님의 천리마운동과 **김정일**장군님의 속도창조운동을 합치고 열배를 곱했다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였던것이다.

정녕 우리 인민의 힘과 지혜, 기질이 세상에서 제일이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면 천사만사가 다 풀려나간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사회주의정치사의 빛나는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기적이 창조되고있으며 그와 함께 선군조선의 최후승리의 그날도 더욱 가까이 오고있다.

글 최광호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며 거연히 일떠선 원산군민발전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증산의 동음 높이 울리며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받들고 평양326전선공장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인민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전선류생산을 맡고있는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지난해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나날에 발휘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살려나감으로써 공장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창의창발성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물론 로동자들까지 생산장성의 중요한 원동력을 새 기술개발에서 찾고 모두가 탐구하고 갱신하는 사업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과학기술보급실은 밤깊도록 불이 꺼질줄 모르고 연구실들에서는 시험이 그칠줄 모르는 공장이다.

높아가는 대중적기술혁신의 열기속에서 선재직장에서는 파놈에서 고순도알루미니움을 추출하는 새 기술을 발명하여 원료자재보장을 선행시키고있다.

불순물과 습기가 많은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에는 못쓰는것으로 되여있던 폴리염화비닐을 재생하는 방법을 창안도입한 케블직장에서는 매일 2 000m의 전선을 더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첨단기술로 알려진 롤식인쇄잉크와 동연신유도 개발하고 150㎜대형압축기며 3 000t연피프레스 등 낡은 설비들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여 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고있다.

과학기술을 증산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나아가는 평양326전선공장에서 생산된 각종 전선류들은 인민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태현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전선류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통합생산지휘실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해나가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자체의 힘과 기술로

- 사리원대성타올공장에서 -

사리원대성타올공장에서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새롭게 꾸렸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방직공업발전추세에 맞게 공장의 현대화를 수입설비들을 들여오거나 쉬운것부터 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과학연구집단과 련관부문 그리고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한꺼번에 통채로 실현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중에서도 기술적제원이 복잡한 타올직기를 새롭게 개조하는것은 결코 헐치 않았다.

그러나 생산공정의 현대화이자 곧 국산화라는것을 자각한 그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 그리고 평양방직기계공장의 로동계급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종전의 타올북직기들을 CNC화된 유연창대식직기로 개조하였다.

그리고 모든 공정에 콤퓨터조종체계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6개월이 걸려서야 바꿀수 있었던 문양도 오늘에 와서는 1시간이면 제품들에 더 멋있게 새기고있다.

지금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자기 힘과 기술에 대한 믿음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낼 확신을 지니고 모든 설비관리를 알뜰히 하면서 타올제품의 생산을 부단히 높여가고있다.

사리원대성타올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도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사진, 글 안평연

로동자들의 창발적의견이 제품마다에 반영되고있다.

공장에서는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버섯생산의 과학화를 위하여

-정방산버섯공장을 찾아서-

우리는 여러가지 버섯생산으로 시민들속에 널리 알려지고있는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산버섯공장을 찾았다.

흰곤봉버섯, 느타리버섯, 만년버섯, 팽나무버섯, 비늘먹물버섯 등 갖가지 식용 및 약용버섯들을 생산하는 정방산버섯공장이 건설된것은 몇해전이다.

주체103(2014)년 2월 첫 버섯생산을 시작한 공장에서는 버섯재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것을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 생산에 앞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지배인 문혜순을 비롯하여 오랜기간 버섯을 키워온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경험과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공장에서는 모두가 새롭고 의의있는 버섯재배기술탐구에 떨쳐나섰다.

따라배우기와 따라앞서기, 경험교환운동으로 온 공장이 들끓는 속에서 지난해 흰곤봉버섯을 생산하고 나온 페기질로 약용버섯으로서 의의가 큰 만년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을 발명하여 지적제품전시회에서 1등을 한것을 비롯하여 공장에서는 수십건의 버섯재배방법들이 창안도입되였다.

흰곤봉버섯을 생산한 페기질로 느타리버섯을 비롯한 여러가지 버섯들의 재배에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원료운반 및 계량계측계통의 완성을 비롯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에서도 많은 전진을 가져왔다.

하여 오늘 공장에서는 해마다 갖가지 버섯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사진, 글 안철룡

공장에서는 버섯재배의 과학화를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있다.

버섯배양장

만년버섯

팽나무버섯

느타리버섯

비늘먹물버섯

흰곤봉버섯

천하제일 정일봉

설경속의 고향집

해돋이바위와 룡마바위, 장검바위

천하절경-소백수골 8경

소백수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고의 항일무장투쟁사가 력력히 어려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태양의 성지일뿐아니라 뛰여난 경치를 자랑하는 천하절승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영원히 빛내이려는 조선인민의 념원을 담아 소백수골의 이채로운 절경은 소백수골 8경으로 명명되였다.

소백수골 8경은 천하제일 정일봉(천하령봉), 설경속의 고향집(설중성가), 해돋이바위와 룡마바위, 장검바위(기묘삼암), 천험의 요새다운 지세(천험지세), 소백수골에 피여난 서리꽃(소백상화), 사시장철 흐르는 소백수(사계류수), 2월의 축포야경(2월축포), 끝없이 이어지는 답사행렬(답사인파)로 이루어져있다.

소백수골의 뛰여난 절경가운데서도 천하제일 정일봉은 만리창공에 백두의 정기와 기운을 뻗치며 소소리높이 솟은 그 웅건한 자태와 절묘한 자연미로 하여 으뜸의 절경이다.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리며 조선의 새 봄을 불러온 설경속의 고향집은 천고의 밀림속에서 백설의 향기를 청신하게 풍겨주며 끝없는 신비경을 자아내고있다.

해돋이바위와 룡마바위, 장검바위는 그 생김새가 아주 기이하고 묘하여 소백수골의 특이한 절경을 이룬다. 정일봉에 올라서면 해돋이바위가 마치 새벽창공을 치뚫으며 이글이글 솟아오르는 해돋이마냥 우뚝 솟아있고 그 아래에 마치 긴 장검을 추켜든 장수를 태운듯한 룡마바위와 장검바위가 나란히 솟아있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다.

천험의 요새다운 지세는 천만산악을 거느린 백두령봉속에 자리잡은 소백수골로서 골도 깊고 산도 웅장할뿐아니라 그 지세 또한 절묘하기 그지없어 전설속의 신비경을 보는듯하다.

소백수골에 피여난 서리꽃은 소백수골 특유의 희한한 절경이다.

추운 겨울이면 그 어디나 어김없이 피여나는 서리꽃이지만 소백수골에 피여난 서리꽃은 혹한을 맞받아 피는 그 강직함과 장쾌함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넋과 전설적인간미, 열정의 체취가 끊임없이 빛발치고있어 더더욱 사람들의 매혹과 경탄을 터쳐주는 절경이다.

백두산천지에 시원을 두고 사시장철 흐르는 소백수는 천하제일 정일봉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 소백수골의 이채로운 풍경을 돋구어주고있다.

2월의 축포야경은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의 마음을 담아 해마다 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으며 정일봉상공에 펼쳐지는 위인칭송의 불보라이다.

해마다 소백수골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아오는 답사행군대렬이 사계절 끊기지 않고 흐른다.

끝없이 이어지는 답사행렬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유별한 절경이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천험의 요새다운 지세

소백수골에 피여난
서리꽃

사시장철 흐르는 소백수

2월의 축포야경

끝없이 이어지는 답사행렬

국제김정일상 수여

국제**김정일**상이 지난 2월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수여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는 수십년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위업 수행에서 특출한 공헌을 하였다.

하여 국제**김정일**상리사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고 세계자주화위업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업적과 혁명생애를 길이 빛내이려는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제정된 권위있고 명망높은 명예상인 국제**김정일**상을 오가미 겡이찌에게 수여하였다.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이한 뜻깊은 시기에 그이의 존함을 모신 국제**김정일**상을 수여받은 기쁨과 감격을 피력하고 앞으로도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국제**김정일**상을 수여받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

미국땅에 울려퍼진 위인칭송의 송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미국 뉴욕의 머킨콘써트홀극장에서 재미동포들과 미국예술인들이 함께 출연한 《2월의 봄》 음악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처녀제사공들의 정든 집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있다.

지난 1월에 건설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도 그중의 하나이다.

7층으로 된 합숙은 로동자들의 생활상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있다.

책꽂이, 옷장은 물론 처녀들이 연지곤지로 단장하며 좋아할수 있게 경대까지 갖추어진 호실들과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훌륭히 꾸려진 체육 및 오락실 등 합숙의 곳곳마다 딸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다심한 정이 뜨겁게 흐른다.

층마다에는 처녀들이 제손으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먹으며 료리기술도 배울수 있게 료리실습실도 꾸려져있다.

합숙은 태양빛과 지열에 의한 조명과 랭난방보장체계가 세워져있을뿐만 아니라 공장의 종합편의봉사시설인 진달래원과 외랑으로 련결되여있어 합숙생들의 편의가 최대로 보장되고있다.

이처럼 생활상편의가 우선시되고 문화정서적인 환경과 조건이 보장된 합숙에서 처녀로동자들은 희열과 랑만에 넘쳐 생활하고있다.

제일로 흥성이는 곳은 료리실습실이다.

어머니가 해주던 갖가지 음식들을 제손으로 만든 때면 저마끔 손님들을 청하기에 여념이 없는 처녀들이다.

체육 및 오락실에서 호실별, 층별로 시작되는 탁구경기는 직장별탁구경기로 이어지군 한다.

비단실을 잇던 날랜 솜씨로 번개같이 탁구공을 넘기며 승부를 겨룬 처녀들은 청량음료매대에서 여러가지 시원한 청량음료를 봉사받으며 웃음꽃을 피운다.

불밝은 학습실들에는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해가는 처녀들의 학습열기가 차넘친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합숙을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 정든 우리 집이라고 사랑담아, 정담아 부르며 비단실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은경

미래과학자거리의 밤

온 나라에 교육자, 과학자들의 보금자리로 널리 알려진 미래과학자거리.

저녁이면 불야경을 이룬 집집의 창가며 전자도서관, 류경장미원을 비롯한 문화봉사시설들과 공원, 유원지들마다에서 교육자, 과학자들과 가족들의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은정깊은 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에 돈한푼 내지 않고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그들이다.

《하루 강의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라 우리가 사는 이 거리에 들어서기만 해도 마음이 절로 흥그러워지고 새 힘이 솟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류경장미원을 찾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로교수만이 아니라 봄노을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 교육자부부며 내고향체육용품상점에서 아들에게 축구공을 사주는 젊은 과학자를 비롯하여 교육자,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있다.

살림집도 궁궐같지만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다 갖추어진 이곳에서 문명을 누려가는 그들이다.

행복의 상상봉에 올라 생활의 즐거움을 마음껏 향유해가는 교육자, 과학자들의 기쁨넘친 모습으로 하여 미래과학자거리는 더욱 이채롭다.

잠들줄 모르는 거리와 함께 로교수들은 젊음을 되찾고 젊은 과학자들은 래일의 꿈을 키워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 … …

지새지 말아다오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라고.

사진, 글 김현

필요한 전기를 자연에네르기에 의거하여

풍력과 태양빛에 의한 자연에네르기리용효률을 적극 높여나가기 위해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받들고 많은 공장, 기업소와 기관들에서 태양빛과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보장하고있다.

새희망합작회사 연유판매소에서는 태양빛전지판과 풍력발전기로 경영에 필요한 전기를 100% 충족시키고있다.

아담하게 꾸려진 판매소의 지붕우에 규모있게 설치된 태양빛전지판들과 쉬임없이 돌아가는 여러대의 풍력발전기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로 판매소에서는 연유공급기들을 비롯한 수십대에 달하는 설비들과 여러 건물들의 조명, 야외장식조명 그리고 문화정서생활과 편의봉사시설운영을 보장하고있다.

나라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소비만 하던 연유판매소가 지금은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생산보장함으로써 나라에 전기를 보태주는 판매소로 되였다.

소장 리철호를 비롯한 판매소의 종업원들은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전기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태양빛전지판들을 설치하는것과 함께 풍력발전기를 자체로 만들었다. 기술도 경험도 생소한 그들이였지만 서로의 지혜를 모아 풍력발전기설계를 하고 날개를 깎았으며 발전기를 조립하였다.

태양빛전지판에 자체로 개발한 수감장치도 설치하여 해빛을 따라 자동적으로 돌아갈수 있게 함으로써 전력의 생산성도 높이였다.

종업원들의 높은 애국적열의속에 판매소에는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생겨났다.

판매소에서는 나라의 전기를 한W도 받지 않고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정

민족의 넋이 어려있는 조선치마저고리

평양미술종합대학 교원 공훈예술가 교수 박사 리유미

조선인민은 오랜 력사적과정에 자연지리적조건과 생산활동, 생활양식 및 사상감정과 취미에 맞는 민족옷을 창조하고 계승발전시켜왔다.

오늘 조선녀성들이 즐겨입고있는 조선옷은 고조선(B. C. 30세기 초-B. C. 108년)시기부터 세기를 이어 계승발전되고있는 민족옷의 하나이다.

조선옷에는 고상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산뜻하고 우아한것을 좋아하는 조선인민의 민족성이 짙게 어려있다.

특히 조선옷의 바탕(옷감)과 형태, 무늬와 색갈은 시대적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민족옷의 고유한 특성을 뚜렷이 해주고있다.

무늬형태와 색갈이 잔잔하면서도 우아하고 은근하면서도 고상한 조선옷의 특징은 점잖고 검소하며 생활적인것을 좋아하는 조선민족의 취미와 성격의 반영이다.

사계절에 따라 그리고 나이와 몸매에 맞게 지어입는 조선옷에는 명절날이나 결혼식, 행사때에 입는 례복과 무대복, 일상옷 등이 있다.

녀성들이 조선옷을 입고 나서면 한결 돋보일뿐만 아니라 거리와 행사장, 결혼식장과 무대가 환하고 이채로우며 민족의 향취가 가득차넘친다.

민족의 슬기와 넋이 슴배여있는 조선옷은 인민들에게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리유미
사진 최원철

전통적인 조선치마저고리는 오늘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보다 다양하고 아름답게 발전하고있다.

고상하면서도 아름다운 조선치마저고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녀성들속에서 보기에도 좋을뿐만 아니라 활동하기에도 편리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즐겨입는것은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여러가지 전자제품을 생산

보통강전자제품공장이 인민경제의 정보화실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주체102(2013)년 6월 액정텔레비죤조립으로부터 시작된 공장에서의 전자제품생산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누구나 찾는 명상품, 어디서나 요구하는 명제품이 되게 하려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생산자들은 높은 기술기능이자 질제고라는 관점을 가지고 공장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리용을 활발히 하여 선진기술을 탐구하고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면서 모두가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였다.

공장에서는 모든 생산공정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주파수발생기에 의한 검사, 로화시험 등 검사공정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생산된 제품들의 안정성을 담보하고있다.

여기서 기술준비실 기술자들이 개발한 불량요소들을 찾아내는 프로그람의 도입이 큰 은을 내고있다.

공장에서는 오늘 액정텔레비죤들과 여러 기종의 콤퓨터, USB기억기들을 생산하고있다.

이와 함께 《별무리》, 《보통강》상표를 가진 공장의 전자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사진, 글 홍광남

공장에서 생산한 전자제품들의 일부

금강산화장품전시회가 있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안상택거리에 있는 금강산화장품전시장은 찾아오는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다기능성 화장품들을 비롯하여 전시장에는 독특한 향기와 여러가지 기능성을 가진 《금강산》화장품들이 전시되여있다.

조선의 이름난 특산물로 알려진 개성고려인삼과 제일 명승인 금강산의 천연샘물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강산》화장품들은 GMP인증과 ISO 9001(품질관리체계)인증을 받았으며 SGS(스위스검사검역위원회)를 통과한것이다.

아름다움을 더해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것으로 하여 《금강산》화장품들은 많은 사람들속에서 특히 녀성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현

과학교육발전에 바친 숨은 노력

오늘 조선의 중학교와 사범대학의 거의 모든 수학교재의 판권에는 교육도서출판사 연구사 교수 박사 류해동의 이름이 올라있다.

그는 수많은 교과서, 참고서들을 편집발행하였을뿐아니라 나라의 수학발전사에도 뚜렷한 자욱을 새긴 지식인이다.

후대교육을 위한 길에서

주체30(1941)년 6월 황해도(당시) 금천군의 한 산골마을에서 태여난 류해동의 어릴적 희망은 작가 또는 화가가 되는것이였다고 한다.

교과서, 참고서집필에 정력을 바쳐가고있는
교육도서출판사 연구사 교수 박사 류해동

그러다가 해방(1945. 8. 15.)전 3대머슴의 자식이였던 자기같은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스승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부터 그처럼 되리라 결심하고 사리원사범대학(당시) 수학부에 입학하였다.

그가 수학을 전공하기로 한것은 그의 명석한 추리력과 추상력을 계발시키면서 적극 이끌어주던 중학교 수학교원의 권고를 따른것이였다.

대학 전기간 높은 실력을 발휘한것으로 하여 주체53(1964)년에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을 위한 교재들을 편찬발행하는 교육도서출판사 편집원이 된 그는 몇년안되여 중학교의 대수 및 기하교과서들을 단독으로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구성과 단계설정, 문제제기의 창발성으로 하여 그의 노력이 깃든 창조물들은 언제나 교육전문가들의 관심과 호평을 모았다.

그후 출판사 자연과학부문의 주필로 된 후에도 그는 전국의 수많은 학교들과 대학들을 찾아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시험도 쳐보면서 가장 합리적인 수학교육의 높이를 설정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교재의 내용과 구성방식을 끊임없이 탐구도입하였다.

그에 의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되는 수재교육단계의 수학교과서가 집필되였고 학생들의 년령심리적, 지적발전수준에 맞게 《찾기》, 《해보기》, 《알아보기》의 설정 등과 함께 탐구식(발견식) 또는 론증식으로 서술된 교재들이 새롭게 나오게 되였으며 중등수학교육내용에 그라프론과 수리론리학의 초보가 포함되게 되였다.

온 나라 아이들이 수학의 세계를 더 빨리 그리고 보다 쉽게 알도록 할 일념으로 한생을 하루와 같이 줄기차게 노력해오는 나날에 그가 집필한 수학교재는 모두 150여종이나 된다.

그러니 1960년이후에 태여난 사람들은 모두 류해동이 만든 수학교재를 가지고 중등교육과정을 거치였던것이다.

첨단으로 줄달음친 삶

대학생시절에 이미 교재의 범위를 넘어서 현대수학의 여러 분야를 탐구해가던 류해동은 교과서집필과 편찬으로 바쁜 속에서도 1960년대 중엽부터 위상그라프론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는 기초수학인 위상수학과 응용수학인 그라프론분야의 저작들을 모두 독파한데 이어 1차원위상그라프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그 령역을 점차 다차원에로 확장해나갔다.

나라의 수학발전에 이바지할 재부를 기어이 창조하고야말 일념안고 휴식참은 물론 잠자리에서도 사색과 탐구를 중단하지 않은 그에게 있어 매일 새벽 4시는 드팀없는 기상시간이였고 새로 찾은 적지 않은 정리와 공식들은 깊은 밤 잠자리에서 그 착상이 떠오른것이였다.

주체96(2007)년에 그는 위상그라프론분야에서 오래동안 공인되여 있던 《홀수차원위상다양체는 무한개》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국제수학자동맹에 《홀수차원위상다양체는 해당한 차원의 구면 하나뿐》이라는 것을 론증하는 론문을 보내여 그 정리가 전적으로 옳다는것을 인정시켰다.

날이 흐를수록 더욱 불타는 정열을 안고 그는 지금까지 위상그라프론에 관한 30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을 집필하였다.

후에 수도의 한 종합대학의 강좌장인 아들 류일형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 연구사업에서 그들은 무려 630여개의 새 공식을 찾아내였고 마침내 700여페지에 달하는 단행본 《위상그라프론》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결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다. 제일가는 재능은 식을줄 모르는 정열이다.》 이것은 한생토록 이룩한 그의 성과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사람들에게 류해동교수가 늘 강조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40여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키워내기도 한 그는 오늘도 후대들과 과학을 위한 길에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있다.

사진 홍태웅 글 최광호

가정에서는 손자의 학습을 도와주는 세심한 선생이기도 하다.

중국 연변출판사일군과 교과서편찬경험을 교환하는 류해동

류해동이 집필완성하여 교육사업에 널리 리용되고있는 교재들의 일부

민족예술창조로 70년

주체36(1947)년 10월 조선에서는 민족적 정서를 구현한 음악과 무용, 가극 등의 무대작품을 창작공연하는 예술단체로서 북조선가극단이 창립되였다.

오늘의 국립민족예술단의 전신으로 되는 이 단체는 가극 《견우직녀》로 창립공연의 첫 막을 올린 때로부터 지난 세기 60년대까지 전설, 설화 등 민족고전주제의 창극창조와 함께 시대현실을 반영한 무용 및 단막가극작품들의 창작공연을 위주로 자기 활동을 진행하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직접적인 관심과 지도속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가 현대가극의 표준으로 태여나고 무대예술부문에서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던 1970년대에 예술단은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를 창작공연하여 현대가극예술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

그후 민족가극 《춘향전》의 창작완성과 가야금병창을 새롭게 발전시킨 가야금독주와 병창 《옹헤야》를 비롯한 특색있는 민족기악작품들을 창작형상한 예술단은 민족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문예정책에 따라 1990년대에 종합적인 민족예술창조집단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이 시기 민족가극 《심청전》과 민속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 무용 《양산도》, 《장고춤》과 같은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공연한 예술단에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능력있는 민족예술창조집단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여왔다.

최근년간에도 예술단에서는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 무용조곡 《황금의 내 나라》등 민족적정서와 향취가 넘치는 작품들을 창작공연하여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예술의 우수한 품격과 고상하고 락천적인 조선민족의 정신적풍모를 잘 보여주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로운 형식의 무대예술작품인 음악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를 훌륭히 창작완성하여 무대에 펼쳤다.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인민배우들을 비롯한 재능있는 창작가, 배우들이 많이 망라되여있는 예술단은 지난 70년간 국내 및 대외공연활동을 줄기차게 벌려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의 민족예술을 힘있게 과시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오늘도 국립민족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민족예술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나가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사명감을 자각하고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창작창조활동을 힘있게 벌려가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최기성

창작가, 예술인들은 민족적정서가 짙은 특색있는 작품들을 훌륭하게 형상하기 위해 집체적지혜를 모으고있다.

국립민족예술단의 자랑스러운 연혁을 더듬어

가극 《심청전》의 한 장면
주체36(1947)년

민족가극 《금강산 팔선녀》중에서
주체57(1968)년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중에서
주체61(1972)년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중에서
주체62(1973)년

민족가극 《춘향전》중에서
주체77(1988)년

민속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중에서
주체86(1997)년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에 큰 힘을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에 큰 힘을 넣고있는 조선에서는 수많은 학교들에서 정보화가 실현되여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데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평양시의 서성구역 긴재초급중학교에서도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리여 그 생활력을 나날이 높여가고있다.

여기에는 이 학교 교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그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실들의 다기능화를 실현할 목표를 내세웠다.

매 교실마다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갖추고 학교의 구내망을 구축하며 교수 및 교무행정관리를 콤퓨터화하기 위한 사업은 초행길이였지만 그들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바쳐갔다.

그들이 실리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교실들로 꾸리기 위해 세계적인 추세를 연구하며 펼쳐본 자료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교장 민경주를 비롯한 이곳 교원들은 교육연구원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구내망과 련결된 콤퓨터와 전자칠판, 송상카메라, 직관물투시기 등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갖춘 다기능화된 교실들을 꾸리였다.

또한 자체의 힘으로 홈페지 《우리 학교》도 개설하고 그 실효성을 높여나가고있다.

그와 함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과목별 다매체편집물과 원격교수도 원만히 할수 있는 전자교수안들도 갖추어놓고 적극 리용하고있다.

하여 45분수업의 효과가 높아졌고 보고싶고 알고싶은것을 임의의 순간에 홈페지를 통하여 열람할수 있어 학생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올라가고 보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있다.

교수참관도 망상으로 임의의 교실을 선택하여 진행하며 교무행정관리도 홈페지를 통하여 진행하고있어 교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비옥한 토양에서 알찬 열매가 나듯이 미래를 위해 바쳐가는 교원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서성구역 긴재초급중학교에서는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기둥감들이 자라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강수정

교육환경이 일신된 교정에서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해가고있는 학생들

류경안과종합병원 의료일군들의 정성에 의하여 광명을 되찾은 옥류대외건설사업소 로동자 김광명

김광명의 눈치료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가고있는 의료일군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조선속담에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나는 지금껏 나라의 고마운 혜택속에서 살아오다나니 내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고있는가에 대하여 다는 몰랐다.

그러다가 지난 2월 오른쪽눈에 망막박리가 와서 류경안과종합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으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였다.

당시 나의 병상태에서는 눈을 그대로 보존하는것만도 다행이고 시력을 되찾는다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병원의료일군들은 나에게 기어이 광명을 안겨주겠다며 수술을 결심하였으며 나는 2시간이상이나 수술을 받게 되였다.

수술후에는 매일 7～8회에 달하는 담당선생의 관찰과 함께 4～5차의 안저검사, 눈압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각종 비타민과 대사부활제, 항생제 등 갖가지 약들이 무상으로 나의 온몸으로 흘러들었다.

이렇게 한달이라는 치료를 받고 나는 광명을 되찾게 되였다.

정말이지 그때 평범한 로동자인 나를 위해 그렇듯 온갖 정성과 심혈을 다 기울여가는 의료일군들에게서 친혈육의 정과 함께 누구나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그것은 다시 찾은 광명으로 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더욱 깊이 새겨졌다.

병원에는 주사레이자안저촬영기, 각막내피세포측정기를 비롯한 첨단수준의 안과치료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고 갖가지 안경들, 부속품들, 광학기재들이 꽉 들어찬 안경상점까지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인민의 병원으로 훌륭히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에서 평범한 로동자인 내가 광명을 되찾았고 우리 인민모두가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이 현실은 정말이지 자본주의나라에서 같으면 있을수도 흉내낼수도 없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의 구석구석마다에 알고 받는것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이 어려있고 조선로동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나가겠다.

김광명

사진 최원철

병원에서 퇴원한 후

평성석탄공업대학

과학적인 교수방법을 탐구하고있는 교원들

평성석탄공업대학은 석탄공업부문의 기술인재들과 과학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나라에 풍부한 석탄자원을 인민경제발전에 적극 리용하기 위하여 주체57(1968)년 10월에 창립된 대학은 지난 49년간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한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 탄광관리일군들을 키워냈다.

그들속에서는 공화국영웅 2명, 로력영웅 3명, 공훈과학자 3명, 원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를 비롯한 학위학직소유자 490여명이 배출되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받들고 최근년간 대학에서는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면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양성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나라의 지질조건과 석탄의 놓임특성에 맞는 굴진방법과 채굴공학을 비롯하여 현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실천능력을 가진 인재들로 키우고있다.

교실들의 다기능화를 실현하고 채굴공학실험실을 비롯하여 현실성있게 꾸린 실험실들에서의 실물교육은 인재육성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특히 석탄공업부문의 정보화,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고있다.

대학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최근년간에만도 100% 국산화된 전기착암기를 비롯하여 갱안비저항CT탐사기, 지하단면영상화기술 등 100여건의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여 현실에 도입하였다.

평성석탄공업대학에서의 인재육성과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는 나라의 석탄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사진 안철원 글 김정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실천능력을 소유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정통무도의 발전을 위하여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에서 조선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단장 공훈체육인 장동서를 비롯한 선수단의 일군들은 감독들과 선수들이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할 굳은 각오를 지니고 훈련계획수립과 집행에서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도록 적극 추동하고있다.

선수들을 육체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가고있는 선수단에서는 기초기술훈련에 모를 박고 선수들호상간 육체기술지표돌파를 위한 경쟁을 벌리도록 조직하는것과 함께 앞선 선수들을 따라앞서도록 선수들의 훈련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태권도책임감독 백종식을 비롯한 감독들은 속도와 타격힘, 동작의 정확성, 높은 인내력을 기술발전을 위한 중심과제로 제기하고 교수훈련지도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들은 선수들이 태권도의 원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의 동작을 숙련하여도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데 많은 힘을 넣으면서 매 선수들의 나이와 심리 등에 맞추어 자기 사업을 보다 짜고들고있다.

선수들의 훈련성과도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선수들은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강한 육체적부담을 이겨내면서 다양한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훈련을 정열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

선수후비육성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전망성있는 선수후비들을 계속 키워내고 있는 선수단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국제, 국내 태권도강자들을 배출하였다.

2년전에 진행된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과 남자개인기술상을 수여받은 한성민 그리고 지난해의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2016년 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된 리성훈, 제12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김유심 선수들은 바로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의 선수들이다.

사진 홍광남 글 정기상

민중의 승리로 결속된 박근혜탄핵초불시위

집권 4년간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민적악정으로 수치만을 남긴 남조선의 박근혜역도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지난 3월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항거에 의하여 남조선《헌법재판소》에서는 일개 돌팔이무당의 꼭두각시가 되여 《국정》롱락사태를 초래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위선과 기만으로 《대통령》벙거지를 쓴 박근혜는 아무런 공직도 없는 점쟁이에 불과한 최순실이 시키는대로 《정치》를 하고 그와 공모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온 겨레의 통일념원을 란도질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을뿐만 아니라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게 서슴없이 팔아먹었다.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을 실현할 꿈을 꾸는 미국의 옷섶에 매달려 더러운 명줄을 이어갈 심산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의 유지를 위한 막대한 혈세를 섬겨바치고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까지 연장하다 못해 남조선인민들과 국제사회의 단죄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싸드》(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까지 끌어들이기로 한 박근혜이다.

또한 애비였던 박정희역도의 친일굴종행위를 한수 더 떠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저지른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를 몇푼의 돈을 받는 대가로 백지화해버리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함으로써 조선민족의 백년숙적에게 재침의 길을 서슴없이 열어주었다.

《유신》독재부활에 환장한 박근혜역도의 파쑈통치하에서 남조선은 사람못살 인간생지옥으로 전락되였다.

생존권을 요구하여 거리에 나섰던 농민이 파쑈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목숨을 잃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을 비관하며 눈물겨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으며 수백명의 애어린 학생들마저 검푸른 바다속에 억울하게 수장되지 않으면 안되였고 570여만명의 절대빈곤층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권페허지대, 인간생지옥이 박근혜의 반인민적통치가 빚어낸 남조선의 현실이다.

민중을 지옥에 몰아넣은 박근혜는 온갖 사기협잡으로 수천만US$를 긁어들여 사치와 방탕, 부귀영화에 탕진하였다.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흉계를 실현할 기도밑에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거리낌없이 끌어들여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조선반도에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도의 위험을 항시적으로 조성한 박근혜역적이였다.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반역정치에 매달리고 수천만 근로대중은 아랑곳없이 저 하나의 안락만을 추구해온 정치협잡군이며 인간추물인 박근혜의 파멸은 분노한 민심의 사형선고이다

인민의 버림을 받은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은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대결을 일삼고 근로민중의 피땀을 짜내여 막대한 부를 부정축재해온 반역통치배의 말로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정기상

소 금 생 산 유 적 발 굴

지난해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의 연구집단이 조선후국의 소금생산유적을 발굴하였다.

조선후국은 A. D. 3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조선일대에 세워져 2세기 말경까지 존재하다가 고구려(B. C. 277년 – A. D. 668년)에 의하여 통합된 소국이였다.

유적은 주체103(2014)년에 발굴된 4세기경의 고구려소금생산유적이 있는 남포시 온천군 원읍지구에서 발굴되였다.

유적에서는 소금생산과 관련된 시설물로 당시 가마를 걸고 불을 때던 가마터시설과 타원형의 물웅뎅이시설이 발견되였다.

가마터시설은 돌로 쌓은 원형뚝모양으로서 웃부분은 높은 열을 받았던것으로 하여 굳어져있고 안쪽에는 두터운 재층이 있으며 남쪽에는 불을 때던 아궁흔적이 있다.

가마터시설로부터 동남쪽으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있는 물웅뎅이시설의 밑부분에는 검은색의 재층이 두텁게 깔려있다.

뿐만아니라 이곳에서는 검은색, 회백색, 갈색의 질그릇쪼각들과 주머니식쇠도끼 2점을 비롯하여 조선후국시기의 유적이라는것을 실증하여주는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유적에서 발견된 질그릇쪼각들은 지난 시기 고조선(B. C. 30세기 초-B. C. 108년)유민들이 남긴 유적들에서 많이 드러난것들과 일치하며 특히 회백색단지쪼각은 전형적인 조선후국시기의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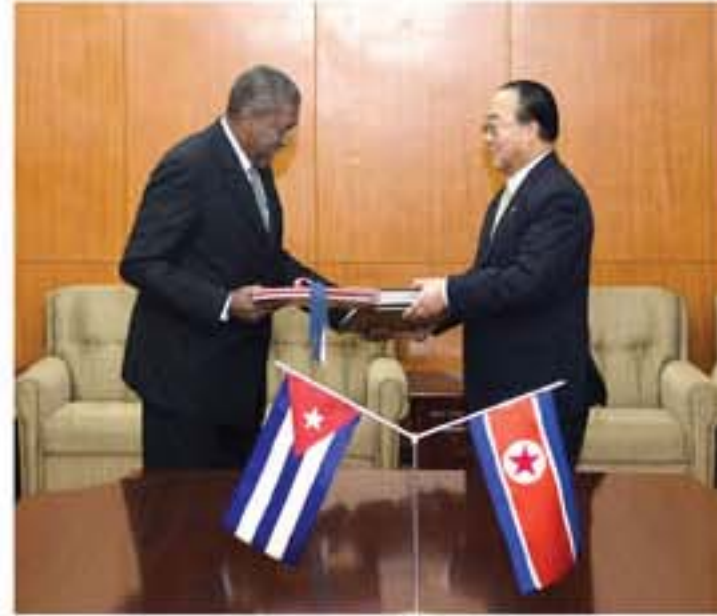
주머니식쇠도끼들은 주머니부분을 단조하여 접는 방법으로 만든것으로서 2세기경부터 조선민족이 사용한 유물이다.

고구려에 통합된 조선후국의 소금생산유적이 새롭게 발굴됨으로써 소금생산기술이 1~2세기에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였으며 그것이 고구려에 이어졌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게 되였을뿐만아니라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은경

소 식

사진 조선중앙통신

날로 확대발전하는 조선과 꾸바사이의 협조와 교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꾸바공화국 정부사이의 2017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발전을 위한 회의의정서와 2017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년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아시아축구련맹 녀성축구의 날에 즈음하여

아시아축구련맹 녀성축구의 날에 즈음하여 강습과 시사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낸곳 : © 조선화보사 2017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김정철 13606—781119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내 나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naenara. com. kp 전자우편(E – mail) : flph@star – co.net.kp
뒤표지: 묘향산의 아침 사진 공유일